

# RESTAURANT ART광주

새 출발 광주국제아트페어  
100여곳 개인 부스전  
아시아 화랑 15곳 등  
갤러리 75곳 참여전  
경매·아시아 등 연계  
지역민도 즐기는 축제

**art:gwangju:15**  
The 6th Gwangju International Art Fair  
**9월3~6일 DJ센터**



올해 광주국제아트페어는 작가 개인부스전을 마련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 사진은 2014년 아트페어.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5'(이하 아트광주)가 작가 중심의 개인부스전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또 올해는 광주미협이 주관단체를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나상욱 광주미협 회장 겸 아트광주 집행위원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오는 9월3~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트페어를 진행한다"며 "'미술광주'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적 한계를 광주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극복하고 더불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미술축제의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예술감독은 김영민 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및 화랑협회 사무국장이 선정됐고, 운영감독은 광주미협 기획분과위원장인 박구환 작가가 맡았다.

올해 아트광주는 해외 화랑 15곳을 포함해 75곳의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본 전

시와 100곳의 작가 개인 부스가 참여하는 특별전, 미디어아트전과 영아티스트전으로 구성된 기획전 등 크게 3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회화, 드로잉, 조소,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문인화, 서예 등 다양한 미술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아트광주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 화랑 중심의 전시에 작가 중심의 개인부스전 형식을 추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작가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인부스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출향 작가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구환 운영감독은 "지역 화랑과 전국 화랑을 균형있게 포함시켜 본 전시를 기획하고 개인부스전을 특별전으로 기획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잠재고객을 개발해 미술 대중화를 실현하는 원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뿐 아니라 미술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미술 작품도 전시, 판매된다. 최근 국제 경기의 침체로 위기에 처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포더블 아트페어(Affordable Art Fair)'를 벤치마킹해 150만~200만 원 사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중심의 국제미술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해외 초대화랑의 범위도 아시아권으로 제한된다.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 광주미협의 생각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의 지명도 높은 화랑을 초대해 아시아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 매해 주변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의 미술시장과 동향을 더욱 심도있게 홍보하고 지역미술가들과의 커넥션을 유도해 상호 국가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한다. 올해

주변국은 중국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또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미술의 대중화를 지향한다. 지역민들이 미술품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 중심의 관람객이나 청소년들이 미술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행운의 경매'나 '대인예술아시아 별장' 등을 연계해 지역민과 미술인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스비를 30만 원으로 하는 대신 작품 판매 수수료를 없애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상욱 집행위원장은 "작가들이 즐겁고, 시민이 행복한 아트페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트광주의 성공여부는 행사장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15-6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백제화랑 이범규 대표 소장품 특가전

6월 2일까지 대동갤러리  
오승윤 '월출산' 등 80여점

백제화랑 이범규 대표가 오는 6월2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소장품 특가전을 연다. 이번 소장품 특가전에는 이 대표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해온 작가 30여명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된다.

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오승윤, 강연균, 우제길, 황영성 등 남도를 대표하는 서양화 작품과 함께 아산 조방원, 산정 서세옥, 묵은 오건규 등의 한국화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근작들 뿐만 아니라 오승윤 화백

이 50대에 그린 1988년 작 '월출산', 붉은 색의 사용이 인상적인 1989년 작 '수련' 등 작품이 전시된다. 또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의 '풍경', '제주도 생활' 등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대연 작가의 '포도'는 빛을 받아 투명하고 탐스러운 포도 알갱이가 화면을 가득 채운 작품이고, 박병우 작가의 '생명-결실'은 붉게 익은 사과를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민중미술운동을 했던 수채화가 강연균 화백의 '민초들의 삶'도 눈에 띈다. 남도의 정서와 함께 굴곡진 역사 속에서 힘들게 버텨온 지역민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문의 062-222-0072. /김경민기자 kki@

## 문종아 바이올린 독주회 31일 금호아트홀



문종아 바이올린독주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문씨는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바르톡의 '루마니아 포크 댄스', 그리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c단조', 블로흐의 '바알 섀-하시디즘 삶의 세 장면 중 즉흥곡'을 들려준다.

문씨는 광주예고, 이화여대를 거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아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조지아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비올라 부전공으로 티칭 어시스턴트를 수료했다.

현재 씨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며 수원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 출강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아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미진씨가 맡았다.

문씨는 지난 27일에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회를 가졌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2-586-0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임방울 날다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 31일 전통문화관

조선대 무용과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은 정통 한국무용뿐 아니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 시리즈를 통해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 '남종화의 마지막 거목 허백련',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등 우리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올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한해 동안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光, 7色 7舞-무등을 춤추다'를 주제로 모두 7개의 작품을 공연한다.

첫 공연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열리는 '광주의 사계'와 '광주의 전통-국창 임방울'이다.

'국창 임방울'은 무용과 판소리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광주 광산이 낳은 국창 임방울의 삶과 사랑, 예술혼을 다양한 춤사위로 풀어냈다.

주인공 임방울 역은 무용단 단원 박태영씨와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인 임재현씨가 맡는다. 박 씨와 임 씨는 '쑥대머리', '호남가', '추억', 판소리 '적벽가' 등 임방울이 즐겨 불렀던 소리를 들려준다. 임방울의 연인 산호주 역으로는 서지영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김수영·김차연·김원선·나유정씨 등 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광주의 사계'는 빛깔 향기 가득한 봄, 작열하는 태양 아래 열정적인 여름, 추억과 첫사랑이 어우러진 총정로 축제와 함께 하는 가을, 무등산 눈꽃과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 등 광주의 사계절을 가무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오는 6월 28일에는 '임당수 연가'를 무대에 올리며 '홍보가 기가 막혀!!~(7월12일), '광주의 풍류'와 '광주의 인물 의재, 허백련'(9월20일), '광주의 눈꽃-이 땅의 빛을 위한 순교'(10월25일)가 공연될 예정이다. 문의 062-230-74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해와 자유대학'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퇴근길 자유대학'이란 별칭으로 불리며 인문학 강좌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해와 자유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이 6월 개강한다. 강좌별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여름학기는 지난 겨울학기부터 시작해온 기초강좌의 마무리로 심화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학, 문학, 역사, 인문,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다룬다.

해와자유대학 지식강좌는 '주말에 만나

는 인문의 향연'이란 별칭으로 매주 토요일 미학, 인문, 문학, 역사강좌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강좌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는 영화를 보고 그 안에 담긴 미학적, 철학적 지식들을 공유하는 '시네필로' 수업이 진행된다.

일정 및 시간, 수강료는 해외문화예술공간 홈페이지(www.haewaspace.com)를 참조하면된다. 문의 062-233-9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이태리가구

### 명품소파

### 던롭침대

###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